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I

(요 1: 19-27)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복음 1:19부터 4장까지는 전도를 시작하는 장으로, 19절은 요한의 증거에 대한 서론입니다.

1. 질문

(1) 질문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요 1:19)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의 부류가 여기 몇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5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니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구약에서는 할례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상대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 열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확장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례받은 사람만 지칭했다가, 그다음에 유다 지파만 지칭했다가 그다음에는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로,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째로, 신약에서는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단순하고 평범한 유대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 소위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집권자들은 주로 70인 공의회 회원들을 말합니다. 이 권력자들 가운데에는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장로,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2) 질문의 내용

“네가 누구냐...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누구냐...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냐 하느냐”(요 1:19-22)

이 사람들은 요한이 두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도 무섭게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정체를 묻게 되었고 요한이 대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은 것은 벌써 그 당시 사회 구조가 혹은 사회 분위기가 메시아에 대해서 팽배해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가복음에

서는 ‘때가 왔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토론했고 이미 그 모든 것이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는 ‘네가 그 사람이냐’고 할 만큼 온 세상이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증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요 1:20-23)

(1) 예수님이 선택한 증거자

증거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요 15:16)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그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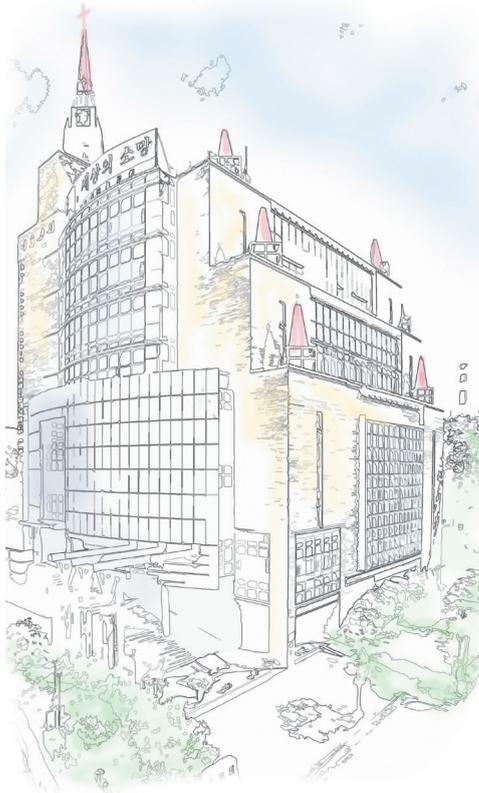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informal missionary(비공식적인 선교사)입니다.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증명서를 받아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증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 주셨듯이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사람이 정직을 상실할 때에 아주 불쌍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요한은 숨고 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 예수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고, 낮아졌습니다. 믿음은 신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을 좇는다고 하면서 겸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의 소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이 시대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



총회재판국,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출교판결을 파기하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9월 10일 개최된 103회기 마지막 재판에서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출교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서울강남노회는 앞서 판결했던 서명철 목사 등 3명에 대한 정직판결이 파기되는데 이어 이종윤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까지 또다시 파기되는 불명예를 입게 된 것은 물론 지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아닌, 오직 기쁨조를 자처한 박노철 목사만을 비호하려는 의도 하에 의도적, 자의적 판결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번역 및 총회 표준 주석 발간 등으로 한국교회는 물론 통합교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온 이종윤 목사를 교단

스스로 내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판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위 판결에서 특별한 법적 이유 설명도 없이 무조건 당시 이종윤 목사는 대리당회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한 후 다만 고령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20년 이상 목회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고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물론 견책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분상 제한도 없고, 헌법상 무효의 기준이 되는 책벌도 아니어서 이종윤 목사의 신분이나 지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총회재판국의 판단과는 거꾸로 이미 국가법원에서는 1, 2심을 통하여 거듭 서울교회 안

식년제규정이 적법, 유효하다며 위 대리당회장 직무행위 당시인 2017년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결한 바 있고, 특히 이종윤 목사는 그 당시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박노철 목사는 위 안식년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부임하였고 또 교인들 앞에서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목회자의 윤리나 금반언 원칙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옳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대리당회장 직무에 응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으로 104회기 재심을 통해 위 견책마저 다시 바로 잡히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박노철 목사 권징관련 2차 기소명령 내리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교단법상의 권징책벌 피할 수 없게 됨

또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7월 16일 박노철 목사 권징관련 건과 관련하여 서울강남노회에 내린 1차 기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서울강남노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 다시 이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2차 기소명령을

내렸다. 서울강남노회가 또다시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인 바, 이제 그동안 목회자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 불법을 자행하고 현재도 그 불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는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판결과 상관없이 교단법상의 권징책벌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예식 목사, 최성욱 목사에 대한 권징건도 함께 심리되다

102회기 총회석상에서 잘못된 발언 시인

또 이날 총회재판국은 101회기 총회 행정재판국원들이 지난 102회기 총회 석상에서의 서울강남노회 김예식 목사와 최성욱 목사의 서울교회 관련 허위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된 권징사건도 함께 심리하였다고 한다.

이건은 이들 두 목사를 비롯한 서울강남노회 일부 총대들이 102회기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든 행정재판국에서 패소한 서울교회 관련 판결 세 건 모두에 대한 재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후 사실도 아닌 발언으로 전후 사정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총대들을 선동하는 불법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이 발언이 빌미가 되어 서울교회 사건들 모두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고 위 101회기 재판국원들은 임기 중간에 갑자기 교체되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까지

초래된 사건이었는데, 이 날 위 두 목사는 당시 총회석상에서의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시인하였으나 이를 공식 문서화 하여 달라는 고소인 측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결국 재판국은 얼마간의 화해조정기간을 거친 후 다음 회기 재판국에서 판결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불법점거 손해배상 건

박노철 목사 측 피고 100명 중 18명에게 소송서류 송달되다

송달받은 교인 중 한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한편 지난 6월 박노철 목사 외 99명을 상대로 제기된 용역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건은 법원에서 박노철 목사 측 피고들에게 2차에 걸쳐 거듭 소송서류를 발송하였는데 그중 18명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박노철 목사를 비롯한 나머지 교인들 대부분 수령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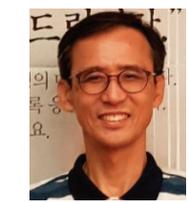
곧 법원의 3차 송달이 시작되겠지만, 박노철 목사 측 주장대로 자신들의 2층 이상 점거가 적법하

다면 굳이 법원 송달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특히 박노철 목사를 비롯 불법장로임직 15인이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분쟁의 맨 앞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속히 받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송달받은 교인들 중 어느 한사람 혼자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니 법원 송달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송달받아야 할 것이다.

송달은 잠시 시일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손해배상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일방적 점거가 계속되는 한 무기한 발생하게 되고 이번에 대상이 된 100명 이외에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을 상대로도 앞으로 추가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원판결 상고 건이 속히 기각되어 서울교회 회복의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백도환 집사
(2019사명자대회 차장)

올해로 28년을 맞는 서울교회 사명자대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으로서 50일 동안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대회입니다.

금년에도 10월 6일(주)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24일(주)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서울교회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므로 사명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사명자대회 기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가 지난 수년간 거짓 목사와 거짓

성도들 때문에 많은 상처가 우리를 핏고 지나갔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경적 교회로 소생(蘇生)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로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역자와 당회원, 스테반회, 권사회, 서바협과 사서함의 임원단과 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많은 성도들이 거짓 목사로 인하여 난생처음 경찰서로 법원으로 검찰청으로 불려가고 없는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받기를 소원하며, 더 이상 지체치 마시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50일간 전 교인의 자율 기도로 진행합니다. 향후에 나누어 드리는 자율 기도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하루 24시간 중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하루 또는 일주일 중 한 시간 이상을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스스로 작성한 기도 시간에 맞추어 각자 개인의 기도 처소에서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족단위, 교구와 다락

방단위, 또는 부서별, 교회학교별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셔도 매우 의미 있는 사명자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경통독표에 맞추어서 신약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명자로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눠드리는 6가지 공동기도제목이 적혀있는 기도카드를 소지하시고 간절하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쓰임 받을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야겠습니다. 더불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할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2019 사명자대회 기간 중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18일(월)부터 11월 23일(토)까지 오전 5시-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서울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달려가 만난 할머니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밝게 웃으시며 노래도 하시고 복숭아를 2개씩이나 드셨던 할머니가 곡기를 끊고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며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부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시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슬퍼어도 할머니는 5일 내내 기뻐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같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하여지고 말이 점점 어눌하게 되는 속에서도 할머니는 눈빛과 팔 동작을 통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입이 말라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던 할머니는 서명철 목사님의 환자심방예배 때 입술을 움직이시며 손을 높이 들고 기쁨의 찬양을 하셨고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온몸을 통한 아멘으로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표현하고 아멘을 되뇌시다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너무나 갑작스럽게 할머니를 보낸 황망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로 바뀌었어요. 기쁨과 감사 속

에서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곁으로 가신 할머니의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머리말에 놓으신 성경 맨 앞장에 서울교회와 자녀 손들의 이름을 빼곡히 써 놓으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저의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토록 예뻐하시던 유나와 유민이는 입관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깨끗하고 예뻐했다고 하네요. 온 가족이 모여 슬퍼하기 보다는 감사하며 할머니를 보내 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를 통해 서울교회를 알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해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시부모님 주셔서 너무 기뻐요.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라고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엄마가 되라고 하신 할머니의 당부, 무엇보다 서울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외손녀, 김민아가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신앙을 이어받아 기도해 힘쓰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시던 할아버지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막내 외삼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 행복 하시죠? 괴로움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편히 쉬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외손녀 김민아 집사

